

잠시나마, 멈춤

능력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 제 한계를 느낍니다

세상엔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신유와 치유의 은사가 넘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설교로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끼리 하는 말을 들었어요. 기독교방송에 나온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봤냐면서 은혜가 넘쳤다고, 당신들도 꼭 들어보라며 차원이 다른 설교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설교는 은혜가 넘치지도, 감동되지도 않는구나. 내 설교로는 교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저는 참으로 능력 없는 목사입니다.

목회자의 능력

사람들, 특히 교인들이 바라는 목회자의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신유와 치유의 능력, 교인들을 감동시키는 설교의 능력도 있지만 강력한 리더십으로 교회 공동체를 단합하고 유기적으로 이끄는 능력과

고유식 교수
호서대학교 목회상담학